

광주 표준지 공시지가 14년만에 내린다

단독주택 3.47% 등 내년 6.27% 하락...전남 6.13% 떨어져 총장로 우체국 맞은편 m²당 1690만원서 1517만원 10.2% ↓

내년 광주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6.27% 하락한다. 전남은 6.16% 내린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지가가 하락한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공시지가가 하락에 광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진 동구 총장로2가 광주우체국 맞은편은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10%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502만필지 중 56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1만호 중 25만호가 대상이다. 광주·전남의 표준지는 각각 9406필지, 7만1155필지로, 표준주택은 각각 5062호, 2만5404호다.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일종의 '샘플'인 셈이다. 이 가격이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정한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5.92% 내렸다. 2009년(-1.42%) 이후 14년 만의 하락이다.

광주의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6.27%로 전국 평균보다 하락 폭이 컸다. 지난해 9.78% 올랐던 것과도 대비된다. 전남 역시 올해는 8.53% 올랐던 것과 달리 내년에는 6.13% 하락한다.

이처럼 공시지가가 떨어지면서 광주에서 가장 비싼 땅값을 자랑하는 동구 총장로2가 광주우체국 맞은편 역시 올해 m²당 1690만원에서 내년 1517만원으로 10.2%(173만원) 내린다.

앞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m²당 1590만원이었다는 점에서 2년 전보다 더 가격이 떨어지는 셈이다.

이밖에 전국 광역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순

으로 하락 폭이 컸다. 용도별로는 임야(-6.61%), 농경지(-6.13%), 주거(-5.90%), 공업(-5.89%)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71.4%)보다 6%포인트 낮아졌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되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빈번해질 수 있어 정부가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결과다. 2020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보다 0.01%포인트 높은 53.6%였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5.95% 하락했다.

광주 공시가격은 3.47% 하락했고, 전남은 2.98% 떨어졌다. 서울(-8.55%)과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대전(-4.84%), 대구(-4.47%)에 비해서는 하락 폭이 적은 편이다. 전남은 전국 평균보다 공시가격 하락률이 가장 적은 지역으로 꼽혔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4.4%포인트 낮아졌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7.5%, 표준지는 8.4% 떨어뜨리는 효과를 불러왔다. 그러나 시세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판정되면서 실제 공시가 하락률은 이보다 낮은 5%대로 축소됐다. 현실화율을 낮추지 않았다면 부동산시장 침체 상황에서도 토지·단독주택 공시지가가 오를 수 있었다는 얘기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최근 집값 급락을 고려하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지는 표준지, 표준 단독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현실화를 2020년 수준 환원에 따른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효과는 -3.5%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시장의 '겨레 질벽' 현상이 시세를 어떻게 판정할 것인지, 실거래가 하락 폭이 더 가팔라질 것인지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 하락 폭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99.25(+26.85)
↑ 코스닥	729.00(+13.84)
↓ 금리(국고채 3년)	3.530(-0.093)
↓ 환율(USD)	1296.30(-9.70)

전남신보 공정채용 '모범'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 획득

전남신보보증재단이 최근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2022년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채용에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인증기관이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에 위해서는 채용시스템, 채용운영, 채용성과의 3개 부문을 합산하여 일정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재단은 ▲공정채용에 대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 ▲규정과 절차에 입각한 채용운영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꾸준한 노력 등을 인정받아 900점 이상의 높은 점수로 인증을 획득했다.

정양수 이사장은 "재단은 직무능력중심의 블라인드 채용 운영을 통해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사회적 책임 이행은 물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상호금융 예수금 6천억 달성

북광주농협, 달성탑 받아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북광주농협이 '상호금융 예수금 6000억원 달성탑'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북광주농협은 지난 2020년 7월 예수금 5000억원을 달성한 뒤 2년 만에 6000억원에 이르렀다.

농협중앙회는 상호금융의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여·수신 부문별 수여 기준에 부합하는 농·축협에 '상호금융 달성탑'을 주고 있다.

구상봉 조합장은 "장기간의 코로나19 상황과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한 걸음 더 도약하는 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광주농협은 내년 상반기 북구 본촌동에 로컬푸드 직매장과 하나마트 개점을 앞두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GGM 같은 혁신기업 유치로 광주·전남 '이주 매력도' 높여야"

한은 광주전남본부 지역경제 세미나

광주 지난해 '이주 매력도' 10위 5년만에 6단계 상승...2개 구 하락 전남 16위...2030선 17위 '꼴찌'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하면서 광주·전남의 '이주 매력도'가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이주 매력도를 높이려면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와 같은 혁신기업 유치 노력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14일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연 '2022년 지역경제 세미나'에서 나왔다.

이날 이승훈 연세대학교 교수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지역 특성이 지역별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 교수는 지역내총생산(GRDP)과 초등학교·학원 수, 병원 병상 수, 평균 공시지가, 고속철도(KTX)역과 거리 등을 기반으로 산출한 '이주 매력도'를 사·도별로 비교했다.

2015년과 2020년 '이주 매력도'를 비교했을 때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하면서 광주는 순위가 올랐지만 전남은 최하위권으로 내려갔다.

17개 시도 가운데 지난 2015년 광주 순위는 16위였지만 5년 뒤 10위로 6단계 올랐다. 전남은 같

은 기간 13위에서 16위로 떨어졌다.

세종은 2015년과 2020년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지난 5년 동안 광주 5개 구에서 매력도가 떨어진 지역은 2곳이었고, 전남은 22개 시·군 가운데 14곳이 하락했다.

연령대별로 광역시·도 매력도 순위를 매겨보면 2015년 기준 세종은 모든 연령대에서 1위를 나타냈다.

20·30대 사이에서 광주는 11위였는데, 전남은 꼴찌인 17위를 기록했다.

40·50대는 광주 15위·전남 6위, 60세 이상 광주 13위·전남 3위 등에 올랐다. 이처럼 전남지역 매력도는 젊은 층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전남의 낮은 매력도는 저조한 지역내총생산과 연관이 있다.

2020년 기준 지역내총생산을 바탕으로 시·군·구를 분위별로 나눴을 때 전남에서 60·80%, 80·100%에 드는 하위권 시·군은 각각 4곳으로 나타났다.

상위 20% 이내 전남 시·군은 5곳에 불과했다. 광주 5개 구는 상위 20% 이내 1곳, 20·40% 1곳, 40·60% 3곳 등으로 나뉘었다.

매력도를 결정하는 요소별로 나눠봐도 전남은 인구수로 나눈 초등학교 수와 병상 수, 주택가격, KTX 접근성 부문이 80·100%에 드는 시·군이 각각 7곳, 10곳, 15곳, 2곳에 달했다. 광주 구 지역이 80·100% 하위권에 드는 부문은 병상 수(4곳)과 KTX 접근성(2곳) 등 2개 분야였다.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전체 순위(2020년)를 보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최재효·왼쪽 4번째)가 14일 오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연 '지역경제 세미나'에서 발제자와 토론자가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한은 제공>

면 50위권에 드는 광주·전남 지역은 무안(15위)과 광주시 동구(31위), 순천(39위) 3곳뿐이었다.

광주 동구의 경우 지난 2015년 순위 222위에서 31위로 비약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로 청장년층 매력도 순위가 올라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20·30대 동구 매력도 순위는 같은 기간 109위에서 45위로 뛰었고, 40·50대는 188위에서 25위로 올랐다.

순천(79위→39위)은 신대지구 조성 효과를 봤고, 무안(71위→15위)은 공공기관 이전 덕을 본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리조트가 조성된 진도의 경우 5년 사이 순위가 172위에서 69위로 급등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로나 기저효과' 광주 취업자 8년 2개월 만에 최대 증가

11월 76만4000명으로 전년비 2만1000명 늘어...절반은 60세 이상

코로나19로 인한 기저 효과로 지난달 광주 취업자가 8년 2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었다. 하지만 광주 취업자 증가분의 절반가량은 60세 이상이 차지했다.

14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취업자 수는 광주 76만4000명·전남 10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2만1000명·2만7000명 늘었다. 광주 증가 폭은 지난 2014년 9월(2만5000명 ↑) 이후 8년 2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광주·전남 취업자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늘었다. 특히 취업자 증가분의 70% 가까이 60세 이상(광주 1만명·전남 2만3000명)에서 나타

다. 광주·전남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세는 연초부터 11개월 연속 지속하고 있다.

15·19세 취업자는 광주 1015명·전남 2000명 늘고, 30대는 광주에서 4000명 늘고 전남은 1년 전과 같았다. 50대 취업자는 광주 7000명·전남 9000명 증가했다.

20대 취업자는 광주에서 3000명 늘고 전남은 1년 전과 같았다. 지난 9월(-9000명)과 10월(-7000명) 이어진 감소세를 딛고 지난달에는 반등했다.

하지만 40대 취업자는 지난달 광주 4000명·전남 7000명 등 1만1000명이나 줄며 1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산업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으로, 광주는 1만6000명, 전남은 2만4000명 증가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도 1년 전보다 광주는 5000명, 전남은 1만2000명 늘었다. 농림어업 취업자도 광주 2000명·전남 5000명 증가했다.

광주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000명 늘었지만, 전남은 3000명 줄며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같은 날 '고용동향 분석' 자료를 내고 "기저 영향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확대 작용하는 가운데 고물가와 금리 인상,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향후 고용률은 유지되거나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은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하면서 취업자 증가 폭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황상현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이 밀알의 집에 김장김치를 후원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단공 광주본부 연말 나눔활동 활발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황상현)가 연말을 맞아 활발한 지역사회공헌에 나서고 있다.

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연말을 맞아 14일 광주시 서구 소재 '마라나타 노인요양시설'과 북구 소재 '나자렛요양원', 장애인보호시설 '밀알의 집'을 방문해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광산구 소재 노인보호센터인 '심청이네 시니어복지센터', 지난달 18일에는 '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도 김장김치를 후원하는 등 최근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5곳에 물품을 후원했다.

이번 나눔활동은 산업단지 기업 활성화를 위해 광주 평동산단 입주기업이 제조한 김장김치 600

kg를 구매해 이를 후원, 복지시설 내 노인·장애인을 비롯해 지역 소외계층 가정 등에도 나눔이 이뤄졌다.

산업단지공단 광주본부는 또 지난 2일에도 광주첨단ESG커뮤니티 기관과 함께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이밖에 매 분기별, 명절마다 지역 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 중이다.

황상현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우리지역 이웃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지역 곳곳의 소외계층을 위해 의미있는 나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美물가호재에 심리회복...코스피 2400 육박

미국 물가 급등세가 진정되는 조짐을 보이자 14일 국내 금융시장에서 코스피가 1% 이상 올라 2400선에 육박했고 원·달러 환율도 1300원선 밑으로 떨어지는 등 금융시장이 반석했다.

이날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매에 힘입어 전장보다 26.85포인트(1.13%) 오른 2399.25로 장을 마쳤다.

장중 고가 기준 코스피가 2400선을 넘은 것은 지난 6일(2416.88) 이후 6거래일 만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202억원, 2283억원을 순매수에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개인은 4532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도 1015억원 매수 우위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남 증가보다 9.7원 내린 달러당 1296.3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1290원대에서 거래를 마친 것은 지난 5일(증가 1292.6원) 이후 7거래일 만으로,

원화 강세로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돼 지수 상승을 북돋웠다.

이날 채권시장도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하며 강세를 보였다. 금리 하락은 채권가격 상승을 뜻한다.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11.2bp(1bp=0.01%포인트) 하락해 연 3.471%를 나타냈고 10년물 금리도 연 3.406%로 6.3bp 떨어졌다.

한전재 3년물 금리는 이날 연 4.931%를 나타내며 지난 9월 21일 이후 거의 석 달 만에 다시 4%대로 하락했다. 기업어음(CP) 91일물 금리도 3거래일 연속 하락해 연 5.5%로 집계됐다. /연합뉴스